논문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최근 10년간(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최 이 랑*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 학술논문 생산 현황
3.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분석도구 및 내용
   2) 키워드 분석
   3) 저자소속기관 분석
4. 맺음말

*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yilang1003@naver.com).
▪투고일 : 2014년 12월 20일 ▪최초심사일 : 2014년 12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월 21일.

www.kci.go.kr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총 5종의 학술지에서 수집한 논문은 479편이며 키워드와 저자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내용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고, 분석 도구는 KrKwic, Ucinet, NetDraw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전자기록이었으며,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키워드를 제외하고서는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학술 논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기관은 명지대, 한국외대, 중앙대, 부산대였고, 전체 기관 중 약 41%의 기관들이 대학 및 대학원이었다. 특히 명지대와 중앙대가 국내 기록관리학의 커뮤니티에서 가장 핵심 기관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내용분석, 네트워크분석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의 기록관리학은 법이 먼저 제정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학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로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기에 바빴던 도입 시기를 보냈다. 이후 국가기록원과 각계각층의 연구자들이 교육, 법 · 제도 정비, 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및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

www.kci.go.kr

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학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모두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또한, 2000년 이후 등장한 기록관리학분야 학회 및 관련 단체들도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타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록관리학에서도 그간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몇 편의 학위논문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나[1], 문헌정보학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2] 학술논문에서는 기록관리학 전체 또는 세부 분야에 대한 지식구조 및 연구 동향 분석이 많이 수행되었다. 장로사, 김유승(2009)[3]은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소연(2011)[4]은 전자기록분야를 최재희(2011)[5]는 평가론, 설문원(2012)[6]은 분류, 강순애(2013)[7]는 기록관리학 역사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간행현황, 주제, 키워드 등의 연구 결과물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의 현황과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중점 연구 분

1) 이진영,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신준성, 「국내 기록관리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2001~2010」,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배수라,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비교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 장로사, 김유승,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호, 2009, 87~100쪽.
4) 이소연,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7~31쪽.
5) 최재희,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11, 7~22쪽.
6) 설문원,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12, 203~232쪽.
7) 강순애,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013, 41~65쪽.

www.kci.go.kr

야와 연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물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 현황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커뮤니티를 조망하고자 했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발행된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학회지에는 국내 기록관리학의 대표 학술지인『한국기록관리학회지』(이하 기록관리학회지),『기록학연구』와 함께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한국문헌정보학회지』(이하 문헌정보학회지),『한국비블리아학회지』(이하 비블리아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이하 도서관·정보학회지)를 포함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를 포함한 이유는 기록관리학분야의 논문이 문헌정보학회지에 상당수 실리고 있기 때문이며, 3종의 학술지를 선택한 이유는 문헌정보학내에서도 정보학 또는 서지학 등의 전문 분야를 다루기보다는 광범위한 주제 영역을 아우르는 학술지로 선정하였다. 반면, 역사학분야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지별로 주제가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논문이 게재되기 어려웠으며, 투고된 경우도 드물어 제외하였다.

학술 논문 검색 및 수집은 DBPIA를 이용하였으며 수집 된 논문 중에서 서평, 기조발제, 정기총회자료 등 논문형식이 아닌 자료들은 배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먼저 선정한 학술지에서 학술 논문을 수집 하여 연도별 논문의 양, 학회지별 투고된 논문의 수 등의 통계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은 수집된 논문에서 서지사항과 저자정보를 추출하여 원정보를 생산하였다. 특히 서지사항에서는 저자키워드를, 저자정보에서는 소속기관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의 종류 중 하나인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연계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분석에서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를 조사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8]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 동향과 학술 커뮤니티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2. 학술논문 생산 현황

『기록학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19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기록관리학회지』에서는 200편이 발표되어 두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양은 비슷하다. 추이를 살펴보면 『기록학연구』는 2009년부터, 『기록관리학회지』는 2012년부터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각 학회지의 간기가 연2회에서 계간과 연3회로 바뀌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 연도별 논문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기록학연구	15	15	18	15	15	26	24	23	21	26	19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	17	12	16	20	20	18	24	28	29	200

8) 박옥남, 「정보조직 지식구조에 대한 연구: 2000~2011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호, 2011, 247~267쪽.

www.kci.go.kr

문헌정보학 학술지에서 기록관리학분야 논문을 추출하는 데에는 별도의 선별 기준이 필요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기록관리학 학술논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인 '기록관리'로 문헌정보학 학술지에서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검색과정에서 놓친 논문을 찾기 위해 연구자 임의의 키워드인 '기록'으로 추가 검색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판단 하에 수작업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와 유관한 논문을 포함하고 무관한 논문들은 제외했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 실린 기록관리학분야 학술논문은 『문헌정보학회지』가 33편, 『도서관·정보학회지』가 14편 『비블리아학회지』가 34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에 대하여 기록관리학분야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문헌정보학회지』가 4.91%, 『도서관·정보학회지』가 1.83%, 『비블리아학회지』가 8.03%에 해당한다.

〈표 2〉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서 발표된 기록관리학 논문 현황

	문헌정보학회지		도서관·정보학회지		비블리아학회지	
	기록관리학 논문	전체 논문	기록관리학 논문	전체 논문	기록관리학 논문	전체 논문
2004	4	59	1	77	2	25
2005	6	58	0	74	4	25
2006	2	75	1	74	4	30
2007	3	70	3	89	3	22
2008	2	73	0	88	2	20
2009	7	67	2	76	5	59
2010	4	67	0	65	1	53
2011	1	71	1	71	2	68
2012	0	57	3	75	7	63
2013	4	74	3	73	4	58
계 기록관리학 논문(A)	33		14		34	
계 전체 논문(B)	671		762		423	
비율(A/B)	4.91		1.83		8.03	

www.kci.go.kr

기록관리학분야 논문의 생산 현황들을 살펴본 결과 기록관리학 논문은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학술지에도 평균 5%로 실리고 있었다. 특히 『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적어도 한 편 이상 기록관리학분야의 학술 논문을 게재하고 있었다.

3.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분석도구 및 내용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KrKwic과 UCINET6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NetDraw이다. 분석내용은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빈도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해당 분석 내용에 대한 주요 개념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각 노드 간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학 지식구조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1) 빈도분석

빈도분석은 KrKwic의 하위 프로그램인 Krwords를 이용하였다. 먼저 기본 엑셀파일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요소만을 추출하여 별도의 .txt파일을 만들고, 이 .txt파일을 Krwords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결과는 각 빈도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엑셀파일과 .txt파일로 얻을 수 있다. 자동 분석 처리이기 때문에 동의어나 불용어 처리에 한계가 있어, 연구자의 수동적 정제 작업이 필요했다.

www.kci.go.kr

(2) 네트워크 분석

① 네트워크 및 노드 분석

네트워크 및 노드 분석에서는 네트워크의 크기, 노드, 링크 수와 연결망의 결속도를 볼 수 있는 연결정도와 밀도를 살펴보았다. 연결정도는 하나의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수를 살펴 볼 수 있는 에고 네트워크 분석[9]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밀도는 노드와 링크의 수를 활용한 계산식[10]을 이용하였다.

②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centrality)은 사회 네트워크 영역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하나의 개체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를 중심성이라고 한다.[1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심성 지표 중에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그리고 아이겐벡터 중심성까지 4가지 중심성을 분석해 보았다.[12]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노드와 직접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노드와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른 노드들과의 근접 정도를 보여주며 네

---

9) 전체 네트워크가 아닌 특정한 노드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 각각의 노드가 어떤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연결정도로 나타난다.

10) 무방향/이진 네트워크 밀도=실제 연결된 링크의 수/{노드수(노드수-1)}/2
* 무방향이란 AB와 BA가 같은 경우이고, 반대는 AB와 BA가 다른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노드간의 순서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무방향/이진 네트워크 밀도 계산식을 적용한다.

11)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2011, 255쪽.

12) 박옥남, 앞의 글, 2011, 247~267쪽.

www.kci.go.kr

트워크 전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향력을 가진 노드를 확인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중개자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이 중심성이라고도 한다.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한 노드의 영향력 또는 중요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척도로 연결된 이웃노드의 중심성이 높으면 연결한 노드의 중심성도 증가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중심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위세 중심성이라 칭하기로 한다.

2)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은 각 논문에 부여된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저자별로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같은 개념을 뜻하는 다양한 단어가 혼재함을 확인했으며, 키워드 정제작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키워드 정제작업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절한 기준 아래에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임숙, 장덕현, 이수상(2011)[13]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키워드 통제 기준과 기록관리학사전(최정태 외, 2005), 기록학 용어 사전(한국기록학회, 2008)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기준을 적용한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키워드의 통제 기준과 사례

기준	사례
동의어/유사어	아키비스트, 기록물관리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단수/복수	아카이브, 아카이브즈
조사유무/생략어	로컬리티의 기록화, 로컬리티기록화
영어번역	이메일, 전자우편 / 레코드매니저, 기록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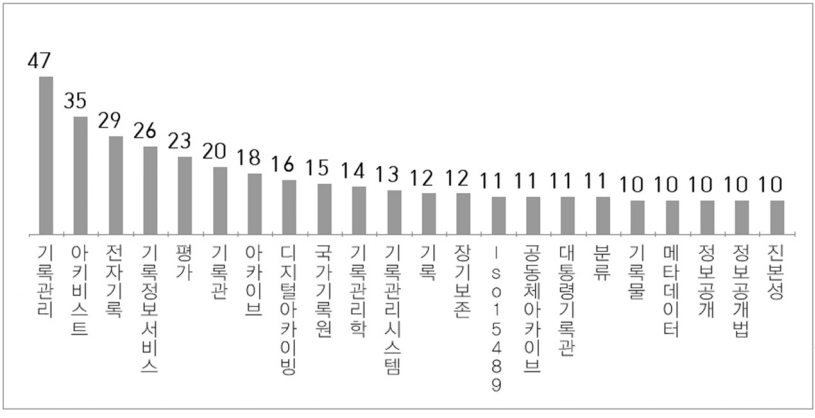
13) 장임숙, 장덕현, 이수상,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011, 353~374쪽.

www.kci.go.kr

(1) 빈도분석

연구대상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제어는 2,552개로 나타났다. 전체 주제어 중 동의어 정리와 통제 작업을 걸쳐 1,603개의 키워드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기록관리가 총 47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이어 아키비스트(35회), 전자기록(29회), 기록정보서비스(26회), 평가(23회)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키워드 중에서 상위 약1%[14]에 해당하는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22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기록관리학 분야의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사실상 연구 주제와 관련이 적은 '기록관리'나, '기록'과 같이 아주 일반적인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기록관리학 주제어는 학술용어이자 전문용어로 엄밀함과 체계성을 갖추어야한다.[15] 하지만 1,600여 개의 전체 키워드 중에서

14) = 22/1603*10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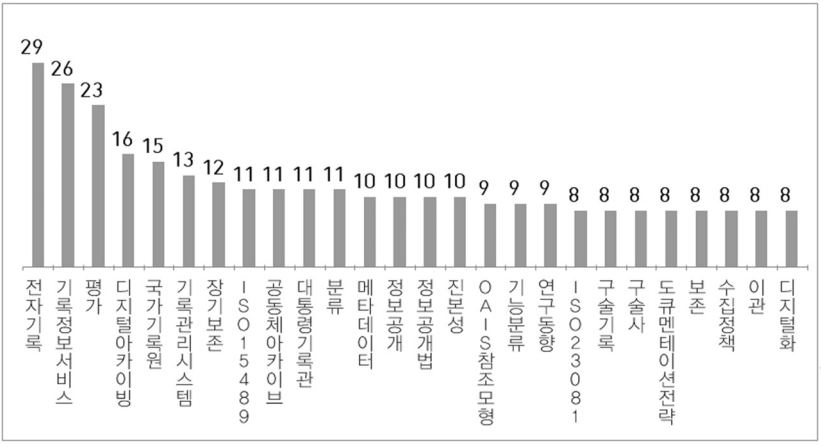
15) 설문원, 「기록관리 용어 사용 실태 분석과 표준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003, 241~268쪽.

www.kci.go.kr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진 키워드가 47회 등장하며, 5회 이상의 빈도수를 가진 키워드가 약1,550(97%)여개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키워드의 체계와 표준화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기록관리학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그리하여 일반적 용어라고 여겨지는 7개의 키워드를 제외하고 2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외한 키워드는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기록관, 아카이브, 기록관리학, 기록, 기록물이며 역시 8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 26개에 대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일반적 키워드를 제외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2차 빈도 분석결과에서는 OAIS참조 모형, 기능분류, 연구동향이 9회 등장하였으며, ISO23081, 구술기록 및 구술사, 도큐멘테이션 전략, 등이 8회 나타났다. 일반적 키워드를 제외한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앞선 분석에 비해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는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메타데이터, 정보공개, 도큐멘테이션 전략 등과 같은 다양한 소재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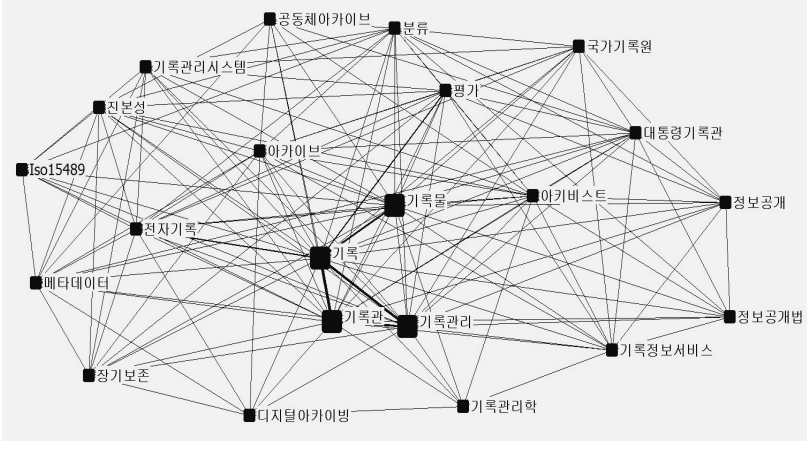
및 주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네트워크 분석

① 네트워크 및 노드 분석

키워드의 빈도분석에서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22개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3〉 네트워크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2개의 키워드 노드들은 총 150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네트워크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정도가 높고, 동시출현빈도가 많은 노드는 서로 가까이에 위치하는데[16] 네트워크 지도를 보면 기록물, 기록, 기록관, 기록관리의 노드가 크고 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주제어들이 네트워크에서 허브노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16) 최영출, 박수정,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2011, 123~139쪽.

www.kci.go.kr

각 키워드 노드별로 연결정도에서는 기록관, 기록이 21로 나타났다. 이는 22개의 노드로 구성된 연결망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주제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며, 다시 말해 기록관과 기록은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키워드와 동시에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록관리와 기록물은 20, 아키비스트, 아카이브, 분류는 16의 연결정도를 가졌으며 전체 22개의 키워드의 평균 연결정도는 13.64로 나타났다.

또한 0과 1의 범위 내에서 값을 가지는 네트워크 밀도는 1에 가까운 값일수록 네트워크의 응집성과 결속도, 복잡성이 높다고는 볼 수 있는데, 주요 키워드의 네트워크는 밀도 값은 0.65[17]을 가졌다.

〈표 4〉 주요 키워드의 연결정도

키워드	연결정도	키워드	연결정도	키워드	연결정도
기록관	21	평가	15	장기보존	11
기록	21	대통령기록관	14	정보공개	11
기록관리	20	메타데이터	13	ISO15489	9
기록물	20	진본성	13	공동체아카이브	9
아키비스트	16	기록정보서비스	12	정보공개법	9
아카이브	16	국가기록원	12	디지털아카이빙	8
분류	16	기록관리시스템	12	기록관리학	7
전자기록	15				
노드연결 개수 평균 13.64					

② 중심성 분석

모든 중심성에서 기록관과 기록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연결 중심성에서는 일반적인 용어인 기록관리, 기록물, 아키비스트 등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에서는 대부분의 값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한 디지털아카이빙(0.618)

17) = 실제 연결 된 링크의 수 / {노드 수(노드 수-1)}/2 = 150 / {(22*21)/2}

www.kci.go.kr

과 기록관리학(0.6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드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측정하는 위세 중심성은 연결 중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같은 연결 중심성 값을 가졌던 아키비스트(0.237)와 분류(0.24)에서 분류가 다른 노드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개자 역할을 하는 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개 중심성에서는 기록관, 기록, 기록관리, 기록물의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키워드의 중심성 값은 매우 낮았다. 이는 나머지 키워드들이 핵심 노드인 4개의 키워드에 비해 독립적인 주제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표 4〉 주요 키워드 중심성 분석 결과

(빈도순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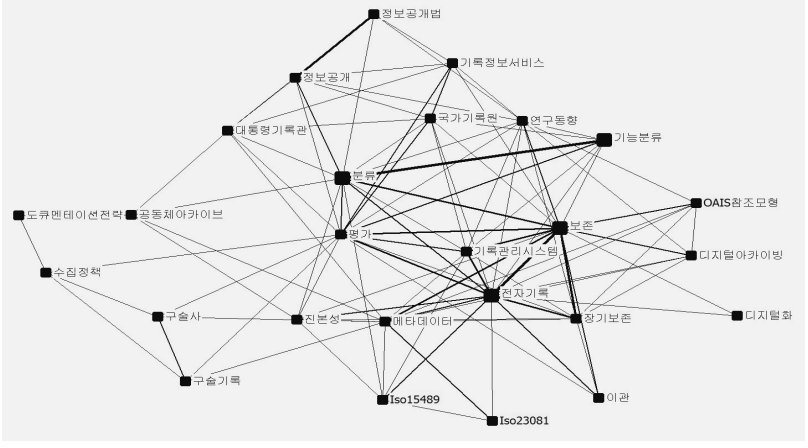
키워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기록관리	0.813	0.955	0.281	0.05222	기록	1.537	1.000	0.291	0.06188
아키비스트	0.040	0.808	0.237	0.02418	장기보존	0.020	0.677	0.175	0.00420
전자기록	0.180	0.778	0.227	0.01507	ISO15489	0.030	0.636	0.15	0.00087
기록정보 서비스	0.051	0.700	0.185	0.00740	공동체 아카이브	0.036	0.636	0.15	0.00139
평가	0.136	0.778	0.235	0.01215	대통령 기록관	0.073	0.750	0.215	0.01200
기록관	0.949	1.000	0.291	0.06188	분류	0.112	0.808	0.24	0.02064
아카이브	0.121	0.808	0.241	0.02152	기록물	0.360	0.955	0.283	0.04909
디지털 아카이빙	0.008	0.618	0.124	0.00338	메타데이터	0.083	0.724	0.193	0.01368
국가기록원	0.051	0.700	0.195	0.00481	정보공개	0.058	0.677	0.178	0.00195
기록관리학	0.050	0.600	0.116	0.00234	정보공개법	0.024	0.636	0.15	0.00043
기록관리 시스템	0.104	0.700	0.191	0.00650	진본성	0.021	0.724	0.204	0.00813

중심성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전체 키워드 중에서 기록, 기록관, 기록관리, 기록물이 가장 주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4개의 키워드를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보기에는 일반적

www.kci.go.kr

이고 무의미한 용어라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일반적 용어를 제외하고 선별하였던 26개의 키워드(〈그림 2〉참조)를 가지고 네트워크 지도를 다시 그려보았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일반적 용어를 제외한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전자기록과 평가가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자신을 제외한 25개의 키워드 중 16개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보존이 15개로 그 뒤를 따랐다. 키워드간의 긴밀성 측면에서는 분류-기능분류(24회)와 보존-전자기록(24회)의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가 가장 높아 연결선이 굵고 진하게 나타났다. 중심성 분석에서는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에서 전자기록과 평가가 가장 높은 값을 가졌다. 매개 중심성에서는 메타데이터의 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메타데이터'가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단어들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표 6〉 주요 키워드의 연결정도

키워드	연결정도	키워드	연결정도	키워드	연결정도
전자기록	16	대통령기록관	8	정보공개법	5
평가	16	진본성	8	구술기록	4
보존	15	기록정보서비스	7	구술사	4
분류	13	정보공개	7	수집정책	4
메타데이터	13	기능분류	7	이관	4
연구동향	12	디지털아카이빙	6	ISO23081	3
기록관리시스템	10	ISO15489	6	도큐멘테이션전략	2
장기보존	10	OAIS참조모형	6	디지털화	2
국가기록원	9	공동체아카이브	5		
노드연결 개수 평균 15.54					

③ 다차원척도 분석

연결망들을 시각화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그 중 많이 쓰이는 기법이 거리를 이용한 다차원척도(MDS)이다.[18]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다차원척도 분석은 노드들 간의 관계 데이터에 나타나는 유사성/상이성을 바탕으로 다차원 공간에 노드들을 배열하여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다.[19] 다차원척도 지도를 통해서는 노드들 간의 근접도 뿐만 아니라 군집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차원척도 지도에서는 관찰된 거리와 공간지도상의 거리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스트레스(stress)라 한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 값에 따라 지도의 적합도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그림 5〉는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 값을 토대로 좌표 값을 계산하여 그린 다차원척도 지도 그림이다. 지도의 스트레스 값은 0.135로 이는 조셉 크루스칼의 스트레스 값 기준[20]을 참고

18)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 제3판, 박영사, 2011, 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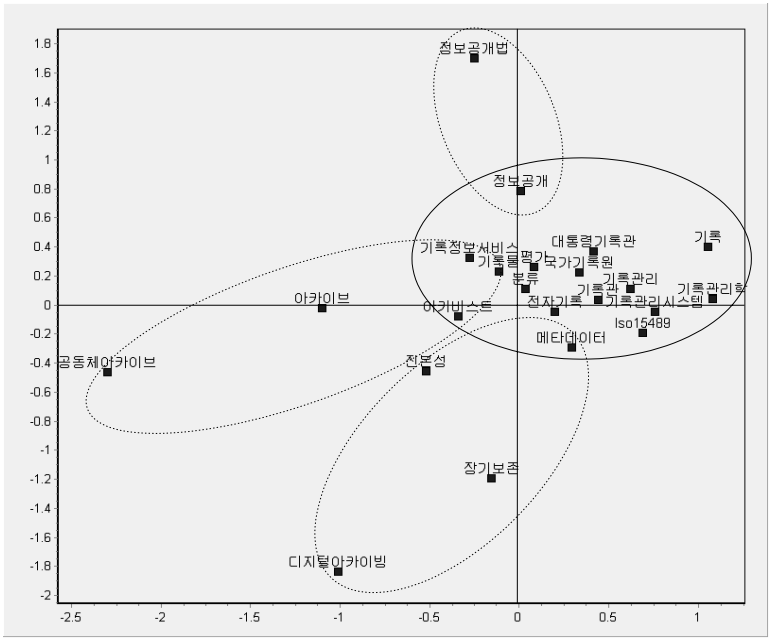
19) 이수상, 앞의 글, 2012, 329쪽.

20) Kruskal, J. B.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a numerical method", Psychometrika, 29, 1964, pp.115~129; 장익진, 『다차원 척도 분석법』, 연암사, 1988; 이수상, 앞의 글, 2012, 328쪽.
스트레스 값에 따라 다차원척도 지도의 적합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www.kci.go.kr

할 때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 주요 키워드 다차원척도 지도



다차원척도 지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하나의 커다란 군집(실선)과 지도에 흩어진 키워드들을 볼 수 있다. 소규모 군집 여러 개가 아닌 하나의 대형 군집이 형성된 모습은 키워들 간의 응집도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큰 군집 내에서도 유사한 키워드들이 근접하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로 대통령기록관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와 기록물, 평가와 분류 등이 있다. 한편 지도상 흩어져 있는 키워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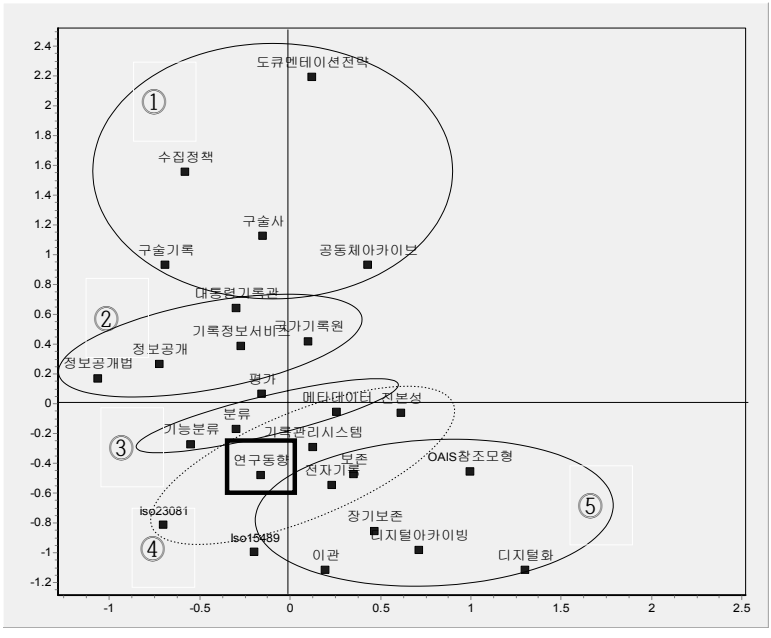
기준. 스트레스 값이 0.2 이상이면 매우 나쁘다; 0.15-0.2이면 나쁘다; 0.10-0.15이면 보통이다; 0.05-0.10이면 좋다(만족한다); 0.05이내면 매우 좋다; 0이면 완벽하다.

www.kci.go.kr

도 주요 군집에 속한 유사한 키워드와 또 다른 집합(점선)을 이루고 있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공동체 아카이브,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디지털아카이빙, 장기보존, 진본성, 메타데이터/가 그러하다. 점선에 속한 키워드들은 지도 위의 거리 간격이 넓은 것으로 보아 키워드간의 긴밀함은 떨어지지만, 하나의 집합에 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서로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인 것을 확인하게 한다.

한편 일반적 키워드를 제외하고 선별한 26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다차원척도 지도를 그려본 결과, 스트레스 값은 0.097로 매우 적합한 상태였으며 앞선 빈도분석보다 키워드 군집과 유사성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일반적 키워드를 제외한 다차원척도 지도



www.kci.go.kr

원점을 기준으로 제1, 2사분면에는 서비스와 평가영역의 키워드가, 제3, 4분면의 아래쪽에는 전자기록, 분류, 보존에 관한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 ①그룹은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최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등장과 그에 주로 적용되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그리고 공기록과 달리 수집전략이 필요한 구술사 및 구술기록에 관한 연구들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그룹은 서비스와 기관에 관한 키워드의 집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1996년 제정되고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최근 정부3.0 시대를 맞아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확산되고 있는 추세다.[21]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의 업무에서 기록정보서비스가 주요 사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③그룹에서는 분류와 관련된 키워드들의 그룹이며, 분류 영역의 논문들 중에는 기능분류에 관한 연구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그룹은 기록관리시스템에 관한 키워드들의 집단이다. 기록 관리 메타데이터에 관한 표준인 ISO23081와 메타데이터, 전자기록, 진본성, 보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록의 속성 중에 진본성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③, ④그룹의 교집합에는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이는 메타데이터가 분류의 영역이면서도 기록관리시스템 연구에서도 주요 연구 영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⑤그룹은 장기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키워드가 군집해 있다. ⑤그룹에 속한 OAIS참조모형, 디지털화, 디지털아카이빙과 같은 키워드로 미루어봤을 때, 최근 10년간 보존 영역에서는 디지털 보존에 관한 논문이 많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③, ④, ⑤그룹의 경우는 각 영역별로 연계성과 관련성이 높아 다차원척도 지도에서도 각 그룹이 겹치거나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동향(사각형)은 기록관리학의 분야를 나타내는 키워드인 서비스, 평가, 분류, 시스템, 전자기록 등의

21) 정진임, 김유승, 「정부3.0 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호, 2014, 45~72쪽.

www.kci.go.kr

단어들 사이에 위치하여 모든 영역을 두루 다루고 있는 키워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3) 키워드 분석 결과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전자기록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용어를 많이 등장하였고, 1,600여 개의 전체 키워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가 47회만 등장한 것은 아직 기록관리학 용어의 체계화와 표준화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 키워드 간의 밀도가 0.65로 주요 키워드들은 서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에서 높은 값을 보여준 키워드들은 '기록물', '기록관리', '기록관', '기록'으로 나타났다. 이 키워드들이 네트워크에서 허브 노드이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중점 연구 분야를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 용어[22]를 제외한 26개의 키워드를 살펴 본 결과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평가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중심성 분석에서 전자기록과 평가가 핵심 연구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차원척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키워드가 하나의 커다란 군집을 형성하였다. 대형 군집 내에서도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서로 근접해 있었으며, 흩어진 키워드들도 주(主) 군집의 키워드와 소규모 집합을 이루며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일반적 용어를 제외한 다차원척도 지도에서는 전자기록, 시스템, 메타데이터 영역이 유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래에 등장한 도큐멘테이션

22)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기록관, 아카이브, 기록관리학, 기록, 기록물.

www.kci.go.kr

전략과 공동체아카이브가 구술사 및 구술기록과 함께 군집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3) 저자소속기관 분석

저자의 소속기관은 연구자의 연구 특성과 정보를 담고 있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소속기관에 속해있느냐가 연구자의 연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관계를 통해 공동연구의 형태와 학술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의 직업도 연구의 진행과 생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시도 하였다. 소속기관정보는 연구가 수행된 당시 논문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에 근거하였다.

(1) 빈도 분석

조사 기간 동안 학술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총 146개였으며 기관의 범주는 '대학 및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회 및 단체', '업체' 5개로 추출하였다.[23] 그 결과 전체 기관 중 60개 기관이 대학 및 대학원이(4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공공기관이 43개(29.45%)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연구기관이 16개(10.96%), 협회 및 단체가 14개(9.59%), 업체가 13개(8.9%)였다.

---

23) 〈범주별로 속한 기관들의 예시〉
대학 및 대학원 : 국내 및 국외 대학 및 대학원.
공공기관 : 국가기록원, 지방자치기관, 학교, 도서관, 특허청, 기상청, 병무청 등.
연구기관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기록관리시스템연구소 등.
협회 및 단체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업체 : (주)세미콘네트웍스, (주)이엔피 등.

www.kci.go.kr

〈표 7〉 학술 연구 생산 기관 현황

	대학 및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회 및 단체	업체	합계
해당 기관 수	60	43	16	14	13	146
비율	41.10	29.45	10.96	9.59	8.90	100.00

개별 기관 별 빈도 분석에서는 명지대학교가 113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국외국어대(60회), 중앙대학교(57회), 부산대학교(50회)가 50회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서 전북대학교(30회), 이화여자대학교(24회), 국가기록원(22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회)를 나타냈다. 146개의 기관들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15개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저자소속기관 빈도분석 결과

저자의 직업 분석은 공저자들은 모두 단독 저자로 설정하여 총 697명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직업은 교수(강사), 박사, 석사, 학생, 연구원(관),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관), 사서, 그 외 실무자로 나누었다.[24] 참여한 전체 연구자 중에 교수(강사)비율이 40.35%로 가장 높

www.kci.go.kr

고, 기타 그룹(10.33%), 박사 그룹(10.04%), 연구원(관) 그룹(8.18%), 석사 그룹(7.75%) 순으로 이어졌다. 교수(강사), 박사, 석사 및 학생과 같이 교육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전체 연구자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성 연구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가하는데서 비롯된 지표로 보여 진다.

〈표 8〉 저자의 직업 비율

연구자 직업	해당 인원	비율	연구자 직업	해당 인원	비율
교수(강사)	316	45.35	기록연구사	45	6.46
박사	70	10.04	학예연구사(관)	11	1.58
석사	54	7.75	사서	10	1.42
학생	35	5.02	그 외 실무자	27	3.87
연구원(관)	57	8.18	기타	72	10.33

(2)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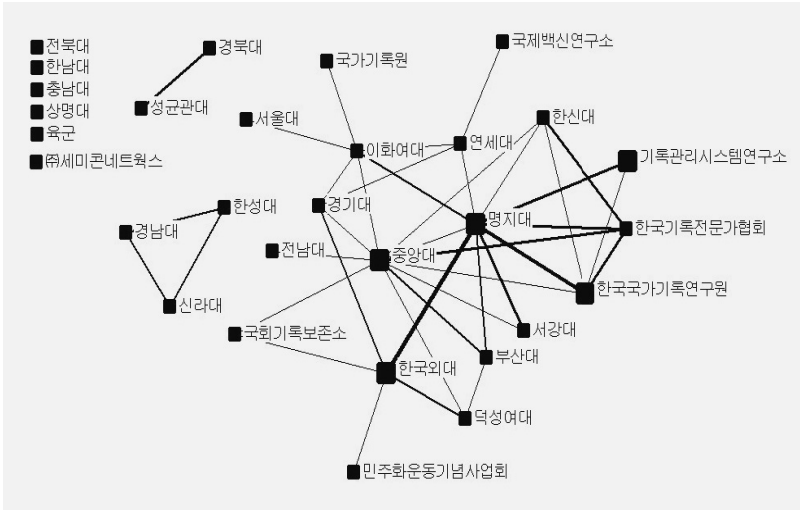
① 네트워크 및 노드 분석

소속기관 간 네트워크 분석은 소속기관들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4회 이상 투고한 30개 기관을 추출하여 기관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30개의 노드와 39개의 링크로 연결된 저자소속기관 네트워크 지도는 〈그림 8〉과 같다.

24) 〈연구자 직업 예시〉
교수(강사): 교수, 조교수, 부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사, 강사 등; 박사: 박사, 박사수료, 박사과정; 석사: 석사, 석사수료, 석사과정; 학생: 그 외 학생; 연구원(관):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 등; 사서: 사서, 사서사무관, 사서교사; 그 외 실무자: 기록관리학 관련 기관 및 단체 근무자.

www.kci.go.kr

〈그림 8〉 저자소속기관 네트워크 지도



저자소속기관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개의 소형 군집과 하나의 대형 군집이 등장했다. 작은 군집의 경우는 경북대-성균관대와 경남대-한성대-신라대였다. 특히 명지대와 한국외대가 가장 핵심 노드이자 관계가 깊은 것으로 지도에 나타났다.

각 소속기관 노드별 네트워크 연결정도에서는 중앙대가 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대가 30개의 기관 중 다른 11개의 기관과 함께 진행한 연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뒤를 이어 명지대가 10개, 이화여대가 6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었다. 30개 기관의 평균 연결정도는 2.6, 네트워크 밀도 값은 0.09[25]였다.

25) =실제 연결된 링크의 수 / 노드수(노드수-1) = 39 / {(30*29)/2}

www.kci.go.kr

〈표 9〉 주요 소속기관의 연결정도

기관명	연결정도	기관명	연결정도	기관명	연결정도
중앙대	11	덕성여대	3	국제백신연구소	1
명지대	10	한성대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이화여대	6	국회기록보존소	2	서울대	1
한국외대	5	신라대	2	성균관대	1
한국국가기록연구원	5	경남대	2	전북대	0
연세대	4	기록관리시스템연구소	2	한남대	0
한신대	4	서강대	2	충남대	0
경기대	4	국가기록원	1	상명대	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4	경북대	1	육군	0
부산대	3	전남대	1	㈜세미콘네트웍스	0
노드 연결정도 평균 2.6					

② 중심성 분석

30개의 주요 저자소속기관의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은 명지대가(0.966)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중앙대(0.483)과 한국외대(0.414), 한국기록전문가협회(0.414)로 나왔다. 근접 중심성은 명지대와 중앙대가 0.081이었고, 이화여대와 경기대가 0.080의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화여대와 경기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 근접 중심성을 높게 가진 데에는 네트워크상에서 중앙에 위치하여 여러 기관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세 중심성에서도 중앙대가 0.47, 명지대가 0.459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0.303의 값을 가지며 위세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졌는데 영향력 높은 명지대, 중앙대와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개 중심성에서도 중앙대(54.35), 명지대(52.35)로 높은 값을 갖고 있지만, 이화여대가(35.517)로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지도에서 이화여대가 중심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표 10〉 저자 소속기관 중심성 분석 결과

(빈도순 정렬)

기관명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기관명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명지대	0.966	0.081	0.459	0.12894	신라대	0.138	0.036	0	0
한국외대	0.414	0.079	0.181	0.05378	충남대	0	0.033	0	0
중앙대	0.483	0.081	0.47	0.13387	국제 백신연구소	0.034	0.076	0.033	0
부산대	0.172	0.079	0.202	0.00226	경남대	0.138	0.036	0	0
전북대	0	0.033	0	0	기록관리 시스템연구소	0.172	0.078	0.142	0
이화여대	0.241	0.080	0.261	0.0874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0.034	0.076	0.034	0
국가기록원	0.034	0.077	0.049	0	상명대	0	0.033	0	0
한국국가 기록연구원	0.379	0.079	0.303	0.00686	서울대	0.034	0.077	0.049	0
한성대	0.138	0.034	0	0	육군	0	0.033	0	0
연세대	0.138	0.033	0.178	0.04298	한신대	0.207	0.079	0.281	0
경북대	0.138	0.034	0	0	경기대	0.172	0.080	0.202	0.02167
한남대	0	0.033	0	0	서강대	0.138	0.079	0.173	0
국회기록 보존소	0.069	0.078	0.121	0.00246	성균관대	0.138	0.034	0	0
전남대	0.034	0.078	0.087	0	㈜세미콘 네트웍스	0	0.033	0	0
덕성여대	0.138	0.079	0.158	0.00493	한국기록 전문가협회	0.414	0.079	0.281	0

모든 중심성 요소에서 명지대와 중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자소속기관의 빈도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볼 때, 한국외대와 부산대, 그리고 이화여대와 경기대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명지대, 중앙대에 이어 높은 논문 생산량을 보였던 한국외대와 부산대는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화여대와 경기대보다 중심성 값이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기관 네트워크를 구축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화여대는 6개의 기관과 연결망을 갖고 있으며, 경기대에서 생산된 모든 논문은

www.kci.go.kr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원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외대와 부산대는 기록관리학 연구 실적은 많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연구보다는 기관내의 연구 내지는 단독 연구가 많아 중심성 수치가 낮았으며, 기록관리학 학술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3) 저자소속기관 분석 결과

저자소속기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 연구 생산 기관 현황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기관, 협회, 단체 및 업체의 연구도 59%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 기록관리학이 학계와 현장이 함께 학문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에 속한 사람 중에서는 기록연구사와 실무 담당자들의 연구가 많았으며 학예연구사(관)과 사서도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둘째, 저자의 직업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교수와 강사 그룹의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기록관리학은 교육과정이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석·박사생들의 연구 참여도가 높았다. 하지만 지도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동연구로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성 연구인 경우가 많아, 주요 연구자층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셋째, 저자 소속기관 중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지도에서는 19개 기관이 연결된 큰 그룹이 형성되었지만, 네트워크의 크기가 단순하고 응집력이 떨어졌다. 연결 정도의 측면에서 중앙대와 명지대는 1/3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계된 허브 노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소속기관의 네트워크는 두 기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소속기관간의 네트워크 분석은 기관간의 공동연구 보다 기관에 속한 연구자간의 공동연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공동연

www.kci.go.kr

구를 하는데 있어서 소속기관의 성격과 특성도 유관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기관들을 확인해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편 공동연구가 이루어진 기관간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상세한 자료조사와 분석이 요구되므로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과 학술 커뮤니티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대상 학술지는『한국기록관리학회지』,『기록학연구』와 함께 문헌정보학 학술지인『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비블리아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포함한 5종이며, 총 수집된 논문은 479편이다. 분석 도구로는 KrKwic, Ucinet, NetDraw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분석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논문에서 추출한 전체 키워드는 2,552개였으며 동의어, 번역어, 조사 유무 등을 정리하여 1,603개의 키워드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순이었다. 그러나 상위에 랭크된 단어들에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키워드가 많아 이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기록관리학 키워드를 확인한 결과,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디지털아카이빙, 국가기록원 순이었다.

둘째, 국내 기록관리학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주요 연구영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스템/장비/기술', '아카이브즈

www.kci.go.kr

/기록물관리', '기록물/기록매체', '법/정책/제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은 영역이라고 밝혔다.[26] 또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학술논문에서는 전자기록관리 및 디지털 보존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록정보서비스가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름을 확인했다[27], 이러한 흐름에 이어, 본 연구에서 확인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핵심 연구 영역의 변화로는 기록정보서비스가 전자기록관리, 보존과 더불어 주요 주제 영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술사, 도큐멘테이션전략과 더불어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영역이 등장하고 법/정책/제도에 대한 연구는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기간 동안 학술 논문에 참여한 기관은 총 146개였으며 명지대, 한국외대, 중앙대, 부산대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전체 기관 중 약 41%의 기관들이 대학 및 대학원이었지만 그 외에 현장과 협회 및 업체들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교수 및 강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석·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명지대와 중앙대가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 커뮤니티에서 가장 허브 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대와 전북대의 경우에는 연구 생산량은 많지만 단독연구 혹은 기관내의 연구의 비율이 높아 소속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 주제 및 키워드, 주요 연구기관을 밝혀 기록관리학 지식구조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단어별 연계성이 높은 키워드로 살펴본 연구영역과 소속기관 간의 분석은 본격적인 기록관리학 지식구조 분석에 앞서 현재의 기록

26) 김규환, 남영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009, 217~239쪽.

27)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 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2007, 345~372쪽.

www.kci.go.kr

관리학 연결망을 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좀 더 심층적인 해석과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 Focused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4 and 2013

Choi, Yilang

This study presents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by analyzing the article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r the study, 479 articles from 5 academic journals published between 2004 and 2013 were analyzed. The study employed content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used keywords in the area of Korean Archival Studies were 'Record and Archive Management' and 'Archivist'. However 'Electronic Records'.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Appraisal' have been used the most frequently when these general words have been excluded.

Second, most participating institutions in journals, during the given period of the study, were Myongji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ung-Ang University,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Especially, MyongJi University and Chung-Ang University are core institutions in the Korean Archival Studies community.

Key words :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Network, Analysis

www.kci.go.kr

www.kci.go.kr